

“포스코, 기후 파괴·학살 협력·노조파괴의 이름”

포스코홀딩스 첫 주주총회 날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 “로펌 이용 범망 빠져나갈 생각 마라”

금속노조가 3월 18일 포스코홀딩스가 첫 주주총회를 여는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약당·미안마 군부 쿠데타 지원·중대재해, 노동탄압 기업인 포스코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물적분할안을 통과시킨 뒤, 3월 2일 출범한 지주회사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철강사업회사 포스코 등을 자회사로 놓는 형태다.

금속노조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미안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모임이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 시민들은 “포스코의 반사회 경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9조 원의 포스코는 노동자 탄압 국내 1위 대기업이다”라며 “금속노조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노조 활동 불인정·부당징계·부당해고·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 백화점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찬일 부위원장은 “회사돈 수십억 원 써가며 대형 로펌 이용해 범



망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노조의 외침을 귀담아들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매년 포스코 주총 때마다 이 자리에 선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포스코는 부동의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이라며 “포스코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11%를 뿜어낸다. 무슨 ESG고, 워드(With) 포스코냐”라고 분노했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포스코는 삼척에 거대한 석탄발전소를 세우려 한다. 석탄 발전을 중단하지 않는 한 포스코는 그린기업이 아니라 그린위싱 기업에 불과하다”라고 규탄했다. ‘그린위싱’이란 기업이 표시·광고 등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경제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업

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한 일자리, 일할 권리가 우선이다” 라면서 “포스코는 조용하고 느린 학살이라고 불리는 석탄 화력발전 건설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강인남 미안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미안마 가스전 사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업이익의 2/3에 달한다”라며 “미안마 군부의 핵심 수입원이 가스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강인남 공동집행위원장은 “포스코가 준 돈을 미안마 군부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 무고한 국민 1,600명을 학살하고 19,000명을 체포, 구금했다, 수많은 사람이 피난민이 됐다”라며, 포스코가 미안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남 공동집행위원장은 “포스코는 미안마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에 더는 동참하지 말라. 미안마 가스전 사업을 중단하고 군부에 가스 대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첫 주주총회를 여는 3월 18일, 주주인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려 하자 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막았다.

3.24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힘차게 조직합시다!

3.24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결의대회는 새정부를 투쟁으로 맞이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단위노조 대표자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두달간 인수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의 큰 그림이 결정될 것입니다.

대선기간 윤석열은 전교조, 언론노조 등 민주노총을 악마화 했고, 귀족노조 운운하며 금속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 폐지, 주120시간 노동을 이야기 하며 노동개악을 통한 대대적인 탄압을 노골적으로 예고했습니다.

동지여러분!

3월 24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공세에 투쟁으로 답할것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들의 이름으로 인수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12기 노조-지부-지회-분회 대표자들이 격동하는 정세속에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각 단위 대표자 동지들께 호소드립니다. 3월 24일 단위대표자 결의대회가 힘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참가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투쟁!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혁 -

